

[보잉] FAA, 737 MAX 수백 대 좌석 부정 장착 적발 - 생산율 확대 FAA 승인 일정에 직접 변수



26.07.28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핵심 요약

- FAA, 737 MAX 수백 대 좌석 부정 장착·비상 착륙 시 이탈 위험 발표
- 월 47 대 생산율 FAA 승인 지연 가능성 높아져 인도 가이드스 리스크 확대
- 선행 PE 159 배 구조에서 규제 리스크 누적은 재평가 압력으로 작용

FAA 가 737 MAX 수백 대 항공기에 좌석이 부정 장착됐고, 비상 착륙 시 좌석이 이탈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. 생산 품질 관리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오른 것으로, 보잉이 현재 FAA 감독 아래 월 생산율 확대 승인을 기다리는 시점에 나온 소식이라 맥락이 가볍지 않다.

우리가 핵심 리스크로 지목해온 737 월 47 대 생산율의 FAA 승인 시점이 이번 이슈와 직결될 수 있다. FY26 500 대 인도 가이드스는 이 승인을 전제로 짜여 있는데, FAA 가 품질 관리 체계를 추가 검토할 명분이 생기면 승인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. 수백 대에 걸친 시정 조치가 요구될 경우 항공사 운항 일정과 인도 흐름에 간접 영향이 미칠 수 있다. 다만 시정 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기간은 본 입력에 포함되지 않아, FCF \$1B~\$3B 가이드스 경로 전체가 흔들린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이르다.

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2 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 159 배는 5 년 중간값 99 배 대비 이미 극단적인 프리미엄 상태로, 실행 차질이 반복 확인될 때마다 주가 재평가 압력에 취약한 구조다. 이번 한 건이 결정적 전환점이라기보다, 규제 리스크가 누적되는 양상 자체가 현 멀티플 정당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.

FAA 가 시정 조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, 그리고 진행 중인 생산율 심사 일정과 연동되는지 여부가 향후 체크포인트다.



재무 요약 (I/B/E/S 컨센서스)

항목	FY Dec-24	FY Dec-25	FY Dec-26 (E)	FY Dec-27 (E)	FY Dec-28 (E)
매출 (Revenue)	66.52	89.46	97.87	112.10	122.99
↳ 증가율	-14.50%	34.50%	9.40%	14.54%	9.71%
매출총이익	-1.99	4.29	12.94	18.51	21.44
↳ 마진	-2.99%	4.79%	13.22%	16.52%	17.43%
EBITDA	-8.87	—	4.59	8.72	12.39
↳ 마진	-13.34%	—	4.69%	7.78%	10.07%
영업이익 (EBIT)	-10.71	4.28	2.62	6.50	9.93
↳ 마진	-16.10%	4.79%	2.67%	5.80%	8.08%
순이익	-13.18	-4.99	-0.19	3.42	6.48
↳ 마진	-19.82%	-5.57%	-0.19%	3.05%	5.27%
EPS	-20.38	-6.54	-0.33	4.15	7.93
↳ 증가율	250.77%	-67.91%	-95.01%	-1372.07%	91.01%
잉여현금흐름 (FCF)	-14.31	-1.88	2.47	6.28	10.27
P/E	—	87.6x	—	51.0x	26.7x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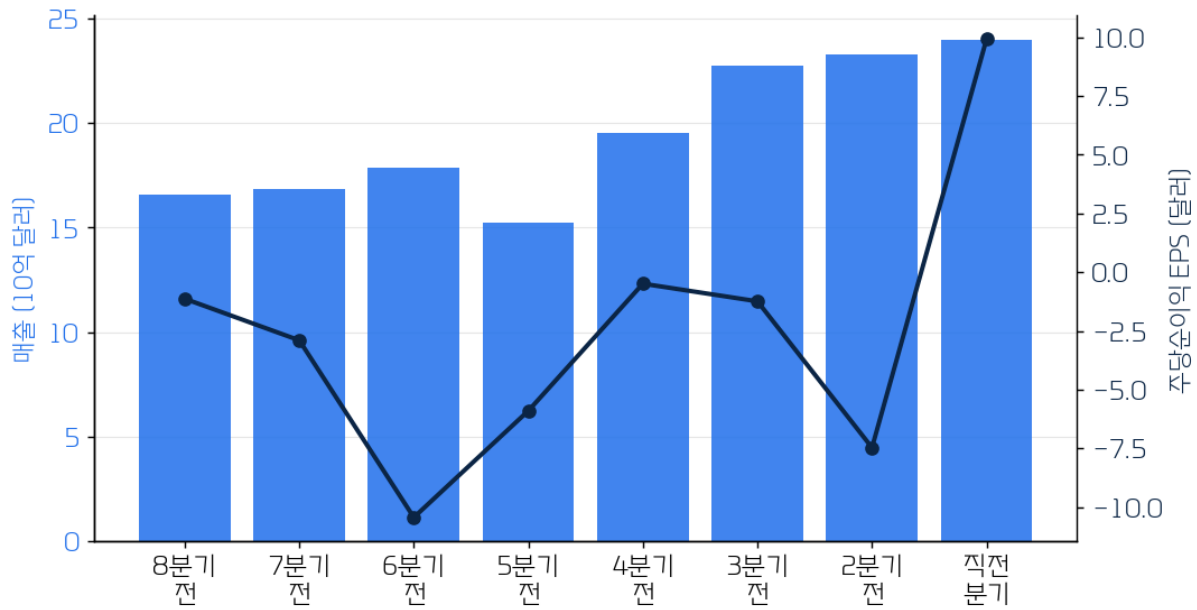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YoY, 단위는 십억 USD

참고 차트

BA 주가·12개월 선행 EP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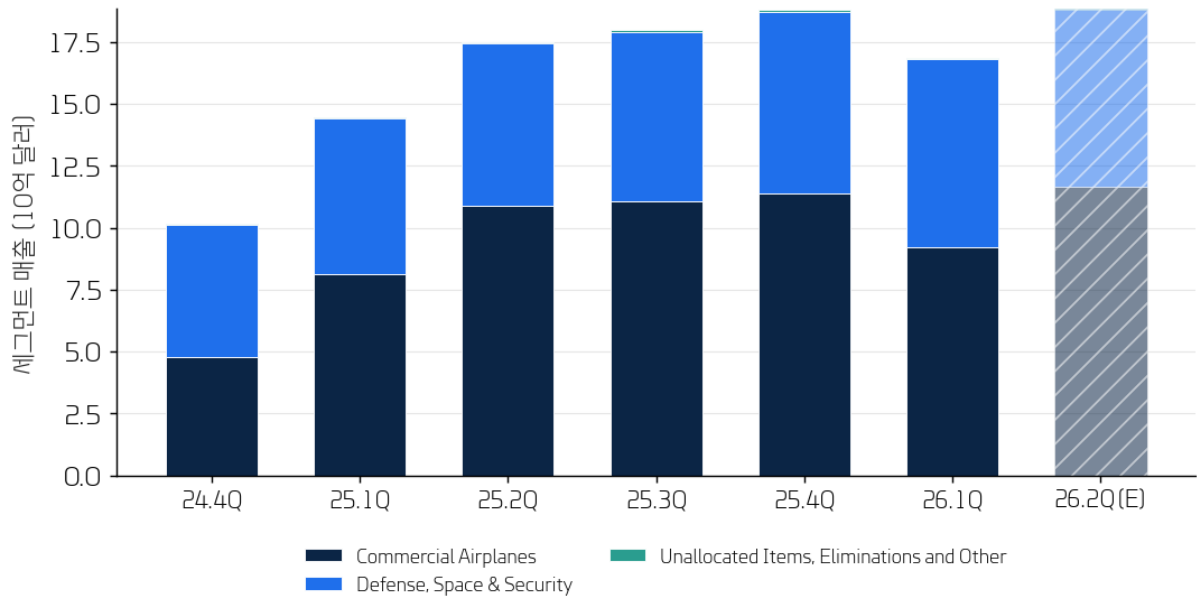


BA 분기 매출·주당순이익(EPS) 과거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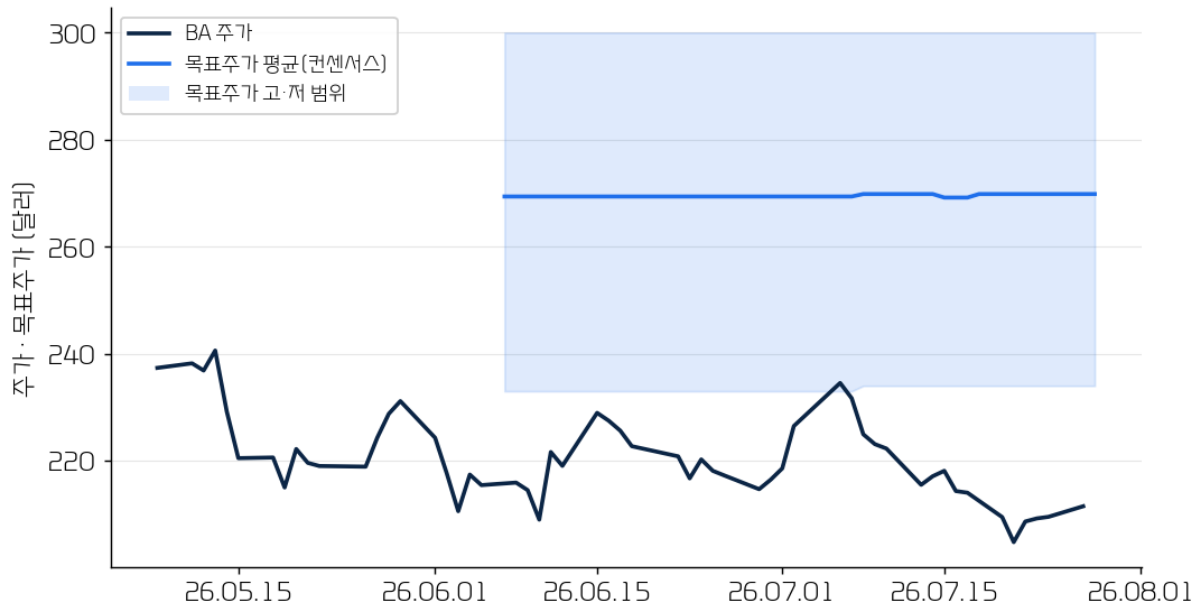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BA 세그먼트 매출 구성(사업부/지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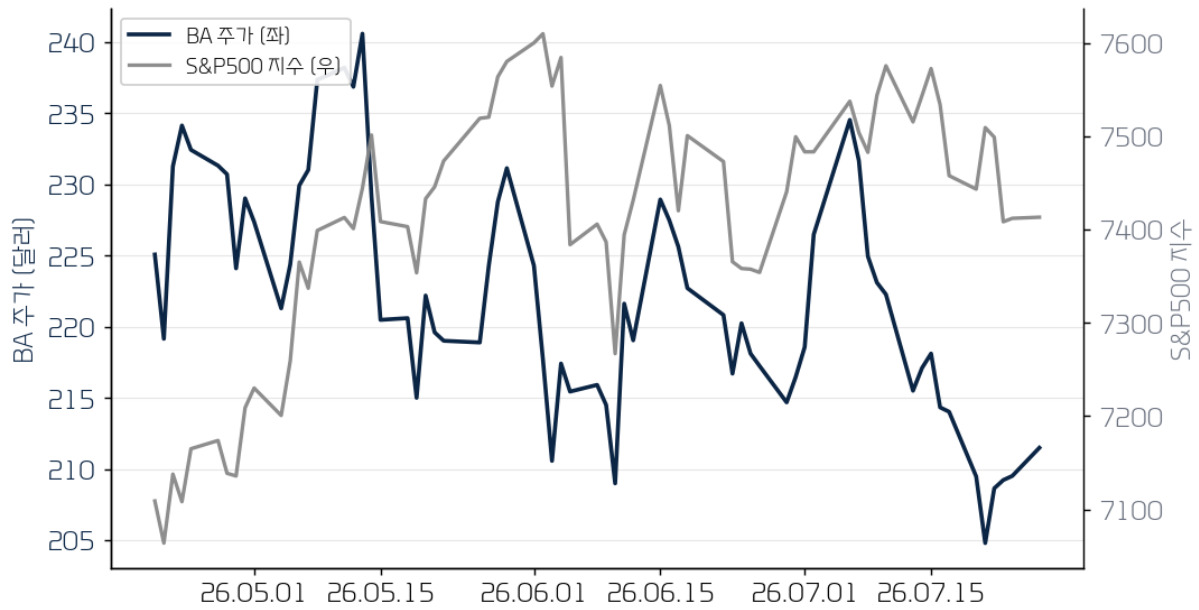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BA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BA 주가 vs S&P500 (최근 90 일)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